

2. 개회

-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함.

3. 전차회의록 낭독

- 2026년 2분기 전차 회의록 낭독 및 채택

4. 위원장 선출

- △ 김국보 부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 위원장 선출이 필요함을 안내함.
- 김주수 위원: 그동안 운영위원으로 꾸준히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온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황세인 임시 운영위원장을 추천함.
- 김호상 위원: 동의 의견을 제시함.
- △ 황세인 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맡아 위원들과 함께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 김국보 부장: 위원장 선출 후 다음 회의부터는 선출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안내함.

4. 사업 및 추진보고

① 2026년 3분기 사업운영경과 및 4분기 사업운영계획

- △ 김주수 위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대한 감사와 격려 차원에서 진행하는 힐링 나들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지 질문함.
- 김국보 부장: 올해는 장거리 이동으로 긴 시간을 할애하기보다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하여 봉사자들이 하루동안 편안하게 ‘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 운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함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은 자원봉사자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현재 복지관 예산은 일부 책정되어 있음을 답변함. 지난 분기 운영위원회 때 김해시로부터 후원금을 지원받아 봉사자들 인정, 보상활동에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 최종 확인 후에 추진하겠다고 함.
- △ 김주수 위원: 현재 김해시 추경을 통한 추가 예산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며, 나들이에 필요한 버스비 등은 기타 지원이 가능한 자원에 대해 후원 확보를 하여 최대한 지원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 김국보 부장: 김해시 및 지역사회 자원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고, 확보된 예산과 자원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함.
- △ 강말숙 위원: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화장실 시설이 조금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특히 1층 화장실의 경우 휠체어가 이용하기 어려운 바닥 경사이며, 단순한 불편 문제가 아니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함.

- 김국보 부장: 현재 1층 화장실과 2층 목욕실, 미사용 공간 등의 시설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아동 이용이 많은 1층 화장실은 아동친화형 화장실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함. 장애인 주간이용센터 내부 화장실도 리모델링 예정에 있다고 답변함.
- △ 강말숙 위원: 아동이나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보기 좋은 것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황세인 위원장: 시설이 오래되면 작은 문제도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공모사업을 기다리는 것과 별도로 현재 위험한 부분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함.
- △ 김국보 부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외부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우선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부터 확인하겠다고 답변함.
- 김호상 위원: 사회복지시설이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있는데, 복지관에서는 폭염 기간 동안 무더위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함.
- △ 김국보 부장: 폭염특보 시 복지관을 지역주민의 무더위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야간까지 개방하고, 1층 로비를 휴식공간으로 지정·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답변함. 아울러 생수 등도 비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황세인 위원장: 복지관이 단순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공간을 넘어 폭염이나 재난 상황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역할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② 2027년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및 동화장애인주간이용센터 당초예산 보고

- △ 김주수 위원: 복지관 운영에 있어 시설관리 인력이 필수인력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현재 관련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문함.
- 강연주 위원: 현재 시설관리 인력을 복지관의 필수인력으로 의무 배치하도록 법령에 명확하게 반영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함. 다만 시설 노후화와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시설관리 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 협회 차원에서도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답변함.
- △ 김정훈 위원: 시설관리 업무가 안전사고 예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법령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
- 김주수 위원: 향후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협회 및 지자체의 논의 상황을 참고하여 시설관리 인력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 황세인 위원장: 시설 노후화와 안전 문제를 고려할 때 시설관리 인력 확보 필요성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직접 채용뿐 아니라 공동관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방법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③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변경 보고

- △ 윤시내 위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련 지침에 맞춰 복지관의 직제·직급·직종·승진체계 등을 현행화하고, 기존 규정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직원의 외부활동 및 복무기준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함.
- 강연주 위원: 직무와 관련된 외부 자문·회의·강의 등은 본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월 최대 3회, 총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 신옥진 위원: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직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내용은 없는지, 보수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직원복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볼 것을 건의함.
- 윤시내 위원: 기존에 명확하지 않았던 병가나 복무 관련 부분은 공무원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직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함.
- △ 신옥진 위원: 전체적인 규정이 바뀌는 만큼 직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 윤시내 위원: 직원 의견수렴과 노사협의회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장과 법인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함.
- △ 황세인 위원장: 운영규정은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인 만큼 일부 내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전체적인 처우와 복리후생을 함께 살펴봐야 함에 대해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함.
- 윤시내 위원: 운영규정 개정은 세부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직원 의견수렴 및 노사협의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추진하는 것으로 하자고 대답함.
- △ 김국보 부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운영위원회 진행모습